

만3세 하루 일과 별 사례 및 부모역할

부모와 유아 상호작용 상황	아동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	부모역할
놀이시간	한 가지 장난감을 오래 가지고 놀이 할 때 - “다른 장난감 잔뜩 놔두고 넌 왜 00만 가지고 노니? 가지고 놀지 않을 거면서 왜 00을 사달라고 했니? 돈만 아깝잖아.”	유아들은 다양한 특징에 관심을 보이고, 관심사도 금방 다른 곳으로 옮겨 간다. 여러 가지 장난감을 가지고 있어도 좋고 싫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모는 이런 유아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. - “넌 00를 참 좋아하는구나.” - “네가 놀이 할 수 있는 00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?”
	친구의 장난감을 가지고 오고 싶어 할 때 - “넌 욕심도 많구나. 집에 네 장난감도 많이 있잖아.” - “엄마가 사줄게, 놓고 가자.”	이 시기의 유아가 친구와 물건을 공유하기는 어렵다. 유아가 친구의 장난감을 가지고 오고 싶어 할 때,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지 설명해 준다. 그리고 이 갈등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유아의 의견을 묻는다. - 지키지 못할 허황된 약속이나 부정적인 인성을 표현하는 말은 하지 않는다. - “이것은 네가 가져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?”
낮잠	낮잠을 잔 유아가 일어나 칭얼거릴 때 - “잠꾸러기야! 그만 자야지.” - “오늘 종일 놀기만 했구나. 이제 책 좀 읽자.”	-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유아에게 부정적 자아개념을 발달시킬 수 있는 잘못된 애칭이나 별명을 붙여 말하지 않는다. - 모든 놀이는 학습의 일부이다. 부모는 책임기가 놀이의 일부로 학습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한다.
잠자리 들기	유아가 투정부리며 늦게까지 자지 않고, 놀이를 하려고 할 때 - “안자면 00가 잡아간다.” - “어서 자자. 우리 다 눈감고 자는데.” - “늦게 일어나면 내일 어린이집 안 데려다 준다.”	- 유아가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정해 놓는다. 유아는 그에 따라 일상생활을 계획해야 한다. 유아가 잠들어야 하는 늦은 시각에 슈퍼에 데리고 가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. - 부모는 유아가 쉽게 잠들 수 있도록 집안의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고 TV 등 소음이 나지 않도록 환경을 마련한다.
실외놀이·외출	유모차를 유아가 밀겠다고 할 때 - “안 돼, 쪼그만 게 어떻게 유모차를 밀어!”	유아들은 만 2세가 지나면 혼자 무엇이든지 해 보고 싶어 한다. 유모차를 혼자서 밀고, 타지 않고 걷는다면 때를 쓰기도 한다. 부모는 유아의 이런 발달특징을 충분히 이해한다.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유모차를 밀어보는 경험을 해 볼 수도 있다.